

약학단체 포용...「藥學協議會」로 제출법해야

創立40주년 맞아 學會조직 개편방안 모색도

『大韓藥學會 40년 역사 이래 地方대학교수로서는 처음으로 학회장이라는 重責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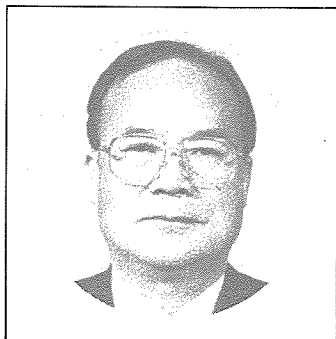
지난 1월 大韓藥學會 제38대 회장에 취임한 安榮根박사(원광대 약대교수)는 취임소감과 함께 地方化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중심의 학회활동에서 탈피, 그동안 다소 소외되어 온 지방 회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모든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학회로 운영해 나갈 뜻을 비친다.

『따라서 多數가 참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 合一點을 찾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지요.』 安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학회기구 및 조직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다.

『더군다나 올해는 학회가 創立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거울삼아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대한약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와함께 약학계가 도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安회장은 『그간 약학계가 양



적 팽창 못지않게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신약기술개발수준면에서 볼때 선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날로 심화되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에 비추어 볼때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없이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국제약품 소비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약학자들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신물질 창출 및 신약개발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安회장은 약학대학을 활성화시켜 우수연구인력 확보에 힘쓰고 연구비 증액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인다.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오는 8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스위스그랜드호텔(예정)에서 40주년기념 「新藥開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新藥개발에 관한 先進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創藥의욕을 고취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신약개발전략」 등 10개분야로 나뉘어 열리게 될 이 학술회의에는 세계 20여개국의 관계 전문가 3백명과 국내에서 4백명등 7백여명이 참여하고 발표 논문수만도 3백여편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약학회를 거쳐 지난 1951년 창립한 대한약학회는 40년이라는 연륜을 쌓아오면서 약학계의 核으로 발전해 온게 사실입니다. 大望의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약학회도 보다 발전적인 변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安회장은 약학계의 社會的 立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한약학회가 약학 관련 모든 단체를 포용하는 「藥學協議會」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 새롭게 제2의 탄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仁>